

COVID-19로 인한 성인의 경제적 피해 염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신승옥*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Concerns About Economic Damage of Adults Due to COVID-19

Seung-Ok Shin*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약

COVID-19 상황에서 경제적 침체는 개인의 경제적 피해 염려와 더불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중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총 15,047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과 COVID-19로 인한 일상생활변화 영향과 관련된 건강행태가 경제적 피해 염려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경제적 피해 염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교육수준, 월 소득수준, 지위, 주관적 건강수준, 신체활동, 흡연으로 다른 특성보다도 경제적 피해염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남성($p=0.024$) 고등학교 졸업자($p<0.001$), 월 소득수준 101-300만원($p=0.002$), 임금근로자($p<0.001$), 주관적 건강수준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대상자($p=0.009$), 신체활동이 '감소하다'고 응답한 대상자($p<0.001$), 흡연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대상자($p=0.016$)에서 경제적 피해 염려가 높았다. COVID-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제적 피해로 인한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경제관련 재정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e context of COVID-19, the economic downturn affects health as well as concerns about economic damage to individuals. In this study, among a total of 15,047 people who were economically active during the community health survey for those aged 19 and over, health behaviors related to the impact of changes in daily life due to the demographic and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COVID-19 were concerned about economic damage. was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it had an effect on Factors affecting the fear of economic damage were gender, education level, monthly income level, status, subjective health level, physical activity, and smoking, which had more influence on the fear of economic damage than other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males($p=0.024$), high school graduates($p<0.001$), monthly income level of 1,000,001 to 3,000,000won($p=0.002$), wage workers($p<0.001$), subjects who responded that their subjective health level was 'similar'($p=0.009$), subjects who responded 'similar' in physical activity($p<0.001$), and smoked 'similar'($p=0.016$) Those who answered high were more concerned about economic damage. Considering that COVID-19 is highly likely to be prolonged and social distancing cannot be ruled out, which affects health care due to economic damage, it is necessary to reflect it in health program development and economic-related fiscal policies.

Key Words Adult, COVID-19, Coronavirus infection, Economic Damage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Coronaviridae family, Betacoronavirus genus Sarbecovirus subgenus의 병원체에 속하며, 유전자 크기는 27~32kb의 RNA 바이러스로서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에 의해 전파된다[1].

본 논문은 2020년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0025)

*Corresponding Author : Seung-Ok Shin(Gwangju Health Univ.)

Email: rnokkk@daum.net

Received November 28, 2021 Revised December 10,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전과경로는 대다수의 감염자의 경우 말하기,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한 비말을 통한 침방울에 의해 주로 2m 이내 밀집하여 접촉된 사람에게 전파된다[1].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2021년 11월 15일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1,986명, 해외유입은 20명으로 최종 신규 확진자는 총 2,006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7,466명 (해외유입확진자 15,390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11월 15일 기준으로 누적 백신접종자는 총 40,102,583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전세계적으로 COVID-19는 신규확진도 연일 발생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COVID-19에 대한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른 방역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

방역대응 체계 중 ‘거리두기’ 수칙준수를 통해 COVID-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내하고 있다. 거리 두기는 환자의 발생상황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나누었다[2].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에서 경제활동은 하지만 COVID-19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이 되도록 일상생활의 습관이 개선되도록 강조하고 있다.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과 4개의 보조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3]. 그러나 연일 신규확진자는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은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거리두기’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불편과 더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를 피해야하는 상황에서 사람의 이동이 급격히 줄어들어 따라 개인과 집단의 생활 속 행위에 제약에 따르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크다[4]. COVID-19로 인해 고용자 및 자영업자는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발생하였고, COVID-19 ‘집단감염이후 3-4개월 동안에는 약 2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4-5].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아버리면 근로자는 일을 그만두거나 일을 찾아야 하는 등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용 불안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단기 근무자는 일자리 감소나 실업자가 될 가망성이 높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소득 감소가 더욱 높았다고 하였는데, COVID-19 상황은 노동직군의 불평등한 상황을 가속시키고 있다[4][6]. 본 연구는 지역 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COVID-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염려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관련된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수립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대상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지역 보건의료계획수립 및 근거중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매년 만 19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표본선정과정은 동/읍.면, 주택유형별 층화 분석을 통해 표본배분 및 표본추출을 한다. 조사기간은 2020년 8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훈련된 조사원이 선정가구를 직접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하였다.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자는 총 229,269명으로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한 대상자이며, 변수와 관련하여 ‘모름’, ‘응답거부’, ‘해당없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를 제외하였고, 최종대상자는 15,047명 이었다[7].

2.2 변수정의

2.2.1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별, 연령(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학력(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 월 가구소득(100만원 미만, 1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지위(고용주 및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주관적 건강수준(좋다, 보통이다, 좋지않다)으로 구성하였다.

2.2.2 COVID-19로 인한 일상생활변화

COVID-19로 인한 일상생활변화에 관한 문항으로 ‘COVID-19유행 이전의 일상생활 상태를 100점이라고 하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정지된 것을 0점이라고 하면 현재 몇점입니까?’로 표시한다. COVID-19로 인한 세부적 일상생활변화를 COVID-19이전과 비교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항은 신체활동, 수면시간, 인스턴트 식품이나 탄산음료먹기, 배달음식 먹기, 음주, 흡연,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의 횟수 등에 대해 ‘늘었다’, ‘비슷하다’, ‘줄었다’로 구성되었다. ‘COVID-19 유행으로 인한 나와 가족에게 경제적 피해가 올까봐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기 어려움 등 포함)염려된다’ 문항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 로 구성하였다.

2.3 분석방법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 주관적 건강수준, 일상생활변화, 경제적 피해 염려에 관한 특성은 항목에 따른 대상자 수와 비율(%)로 분석하였고, 경제적 피해 염려에 따른 차이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제적 피해 염려에 따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2.4 분석결과

2.4.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15,047명으로 경제적 피해염려를 하는 경우는 90.3%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9.7%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경제적 피해염려가 81.9%로 여성 8.5%보다 높았다($p=0.012$).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31.9%로 경제적 피해염려가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았다 ($p<0.001$). 교육 수준은 대학졸업 이상이 47.2%로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높았다($p<0.001$). 월가구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49.4%로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피해 염려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p<0.001$). 직위와 관련하여 임금근로자는 65.6%로 고용자 및 자영업자보다 높았다($p<0.001$). 주관적 건강수준은 좋음이 50.5%로 경제적 피해염려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p<0.001$)[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y Concerns about economic activity

[표 1] 경제적 피해염려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

Variables	Categories	n, Mean	Yes (%)	No (%)	p-value
Total		15,047	90.3	9.7	
Gender	Male	13,668	81.9	8.9	0.012
	Female	1,379	8.5	0.7	
Age(y)	≤39	5,429	31.9	4.2	<0.001
	40-49	4,541	27.3	2.9	
	50-59	3,355	20.5	1.8	
	60over	1,722	10.7	0.8	
Education	≤High school	6,965	43.2	3.1	<0.001
	>College	8,082	47.2	6.5	
Income	≤100	356	2.2	0.2	<0.001
	101-300	3,520	21.5	1.9	
	301-400	2,854	17.3	1.7	
	≥401	8,317	49.4	5.9	
Position	Employee and self-employed	3,955	24.8	1.5	<0.001
	Worker	11,092	65.6	8.1	
Subjective health	Good	8,494	50.5	6.0	<0.001
	Commonly	5,881	35.8	3.3	
	Bad	672	4.1	0.4	

2.4.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영향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 점수는 100점 중 평균 54점이었다. 신체활동은 ‘비슷하다’ 46.6%, ‘줄었다’ 43.1로 경제적 피해염려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p<0.001$). 수면은 ‘비슷하다’ 73.8%, ‘늘었다’ 9.5%, ‘줄었다’ 7.7%($p<0.001$)이었다. 인스턴트 음식섭취는 ‘비슷하다’ 61.5%, ‘늘었다’ 19.1%($p<0.001$)이었다. 배달음식은 ‘비슷하다’ 47.1%, ‘늘었다’ 34.1%, ‘줄었다’ 9.2%로 경제적피해 염려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001$). 음주는 ‘비슷하다’ 46.4%, ‘줄었다’ 37.0%($p<0.001$)이었다. 흡연은 ‘비슷하다’ 65.7%, ‘줄었다’ 16.7%, ‘늘었다’ 7.9%($p<0.001$)이었다. 만남횟수는 ‘줄었다’ 76.7%로 경제적 피해 염려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p<0.001$)[Table 2].

[Table 2] Daily life changes by Concerns about economic activity

[표 2] 경제적 피해염려와 관련된 일상생활 영향

Variables	Categories	n,Mean	Yes(%)	No(%)	p-value
Suspension of daily life		54±21.9			
Physical activity	Increased	640	3.7	0.6	<0.001
	Similar	7,324	46.6	5.1	
	Decreased	7,083	43.1	4.0	
Sleeping	Increased	1,578	9.5	1.0	<0.017
	Similar	12,334	73.8	8.1	
	Decreased	1,135	7.7	0.6	
Instant food	Increased	3,417	19.1	1.8	<0.006
	Similar	10,310	61.5	7.0	
	Decreased	1,590	9.7	0.9	
Delivery food	Increased	5,640	34.1	3.4	<0.001
	Similar	7,904	47.1	5.4	
	Decreased	1,503	9.2	0.8	
Drinking	Increased	1,113	6.9	0.5	<0.001
	Similar	7,760	46.4	5.2	
	Decreased	6,174	37.0	4.0	
Smoking	Increased	1,255	7.9	0.5	<0.001
	Similar	11,041	65.7	7.6	
	Decreased	2,751	16.7	1.5	
Meeting	Increased	77	0.5	0.0	<0.001
	Similar	2,303	13.5	1.8	
	Decreased	12,667	76.4	7.8	

2.4.3 경제적 피해염려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 영향 차이

COVID-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염려와 관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월 소득수준, 지위, 주관적 건강수준, 신체활동, 흡연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Table 3].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오즈비(odds ratio)가 1.27(95% CI, 1.03-1.57)로 경제적 피해염려가 높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대학졸업자보다 오즈비가 0.58(95%CI, 0.51-0.66)로 높았다. 월 가구소득은 100-300만원 소득이 401만원이상보다 오즈비가 0.79(95% CI, 0.68-0.91)로 높았다. 301-400만원은 401만원 이상보다 오즈비가 0.85(95% CI, 0.73-0.99)로 경제적 피해염려가 높았다. 지위는 임금근로자 오즈비 1.82(95% CI, 1.57-2.12)로 고용자 및 자영업자에 비해 경제적 피해 염려가 높았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보통이다’ 오즈비는 0.85(95% CI, 0.76-0.96)로 ‘좋다’ 보다 경제적 피해염려가 높았다. COVID-19영향으로 신체활동은 ‘줄었다’는 오즈비가 0.56(95% CI,

0.44-0.72), ‘비슷하다’는 오즈비가 0.69(95% CI, 0.53-0.88)로 신체활동이 ‘늘었다’ 보다 경제적 피해 염려가 높았다. COVID-19영향으로 흡연은 ‘비슷하다’ 오즈비가 1.21(95% CI, 0.45-2.52)로 흡연이 ‘줄었다’ 보다 경제적 피해염려가 높았다.

[Table 3] Adjusted odds ratios for Concerns about economic activity according to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표 3] 경제적 피해염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일상생활 차이 분석 결과

Variables	Categories	Odds ratio	95% CI	p-value
Gender	Male	1.27	1.03-1.57	0.024
	Female(ref.)	1.00		
Age(y)	≤40	1.23	0.98-1.54	0.073
	41-49	1.11	1.11-1.40	0.333
	50-59	0.98	0.78-1.24	0.913
	60over(ref.)	1.00		
Education	≤High school	0.58	0.51-0.66	<0.001
	≥College(ref.)	1.00		
Income	≤100	0.79	0.52-1.20	0.279
	101-300	0.79	0.68-0.91	0.002
	301-400	0.85	0.73-0.99	0.041
	≥401(ref.)			
Position	Employee and self-employed(ref.)	1.00		
	Worker	1.82	1.57-2.12	<0001
Subjective health	Good(ref.)	1.00		
	Commonly	0.85	0.76-0.96	0.009
	Bad	1.07	0.81-1.14	0.630
Suspension of daily life				
Physical activity	Increased(ref.)	1.00		
	Similar	0.69	0.53-0.88	0.004
	Decreased	0.56	0.44-0.72	<0.001
Sleeping	Increased(ref.)	1.00		
	Similar	0.93	0.76-1.12	0.460
	Decreased	0.87	0.66-1.16	0.372
Instant food	Increased	0.97	0.75-1.22	0.837
	Similar	1.06	0.86-1.37	0.588
	Decreased(ref.)	1.00		
Delivery food	Increased	0.95	0.75-1.22	0.728
	Similar	1.09	0.86-1.37	0.458
	Decreased(ref.)	1.00		
Drinking	Increased	0.76	0.59-1.06	0.056
	Similar	0.95	0.83-1.08	0.456
	Decreased(ref.)	1.00		
Smoking	Increased	0.79	0.59-1.06	0.121
	Similar	1.21	0.45-2.52	0.016
	Decreased(ref.)	1.00		
Meeting	Increased(ref.)	1.00		
	Similar	1.41	0.59-3.36	0.427
	Decreased	1.07	0.45-2.52	0.870

3. 결론

2020년 만19세 이상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 중 COVID-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염려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별, 교육수준, 월 소득수준, 지위, 주관적 건강수준, 신체활동, 흡연이 COVID-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염려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피해 염려가 1.27배 높았다. 남성은 경제적 활동을 여성보다 활발히 하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가능성이 높아[8] COVID-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염려가 높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대학졸업자보다 경제적 피해 염려가 0.58배 높았다. COVID-19로 인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졸이하 저학력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로 나타났다[9]. 임금근로자가 고용자 및 자영업자보다 경제적 피해에 대한 염려가 1.82배 높았다. 종사상 지위와 고용 형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10] COVID-19가 장기화가 될 경우 경제적 피해 염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장기적 재정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월 소득수준은 경제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월 소득 수준 101-300만원은 0.79배, 301-400만원은 0.85배로 401만원이상 소득보다는 경제적 피해염려가 높았다. 경제적 수준을 분류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 중산층 이하' 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면 더욱 불안할 가능성이 높다[8]. 경제적 어려움은 저소득층에게 나타나지만 빈곤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하였으며,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게도 갑작스런 실직, 질병 등으로 경제적 악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11]. 이는 경제적 피해 염려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2]. COVID-19는 과거와 달리 COVID-19 감염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다. 실물경제는 COVID-19 확산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어 경제적 피해 염려가 가증될 수 있다[12]. 주관적 건강수준은 '보통이다' 가 '좋다' 보다는 경제적 피해 염려가 0.85배 높았다. COVID-19 상황에서 주관적 건강수준을 인지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13]. 주관적 건강은 가계 경제적 상황이 좋은 집단이 좋은것으로 나타났다[8]. 특히 건강하다고 지각한다면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스트레스 수준에도 영향을 주었다. 건강수준이 낮다면 질병발생으로 인해 지출해야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피해 염려로 이어질 수 있다.

신체활동이 증가한 경우보다 줄어든 경우 0.56배, 비슷하다 0.69배 경제적 피해염려가 높았다. COVID-19발생 이전에는 스포츠 활동을 비롯하여 신체적 활동이 증가하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활동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14]. 신체적 활동은 여가활동과도 관련이 있고, COVID-19 상황은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도록 권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야외에서 활동한다[15]. 이러한 여가활동 제약은 COVID-19가 장기화된다면 개인의 건강수준을 위협할 수 있다[16]. 따라서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여가활동제한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다양한 원격방법 중 화상을 통한 여가활동도 참여의 수단이 되고 있어 이러한 수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7].

COVID-19로 인한 흡연이 비슷한 대상자는 흡연이 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1.21배 경제적피해 염려가 높았다. WHO에서는 COVID-19와 관련해 흡연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있다[18]. COVID-19 감염시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19-20] WHO에서는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1]. 흡연 대상자는 조사 당시 흡연이 비슷하다고 응답을 했지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장기화된다면 향후에 흡연

이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

COVID-19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염려에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교육수준, 월 소득수준, 지위, 주관적 건강수준, COVID-19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 영향인 신체활동, 흡연 등이 COVID-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염려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적 피해를 염려하는 것은 COVID-19가 장기화 되거나 심각한 상황이 되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염두해둔 것으로 불안요소 및 직접적인 타격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COVID-19 상황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COVID-19 백신의 수준을 향상시켜 안정된 경제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http://ncov.mohw.go.kr>
- [2] <http://ncov.mohw.go.kr>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cial distanc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extended for two weeks in four stage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 [4] Shon, Byong-Don and Moon Hey-Jin, 'Who Suffers the Most Financial Hardships Due to COVID-19?',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73, No.3, pp. 9-31, 2021.
- [5] Korea Labor Institute, 2020, 'Labor Market Assessment in 2020 and Prospects for 2021', *Monthly Labor Review*, December Issue: pp. 41-59, 2020.
- [6] Hwang, Suno-ong., 'The Heterogeneous Impacts of COVID-19 Across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rrangements: Real Time Survey Evidence from Korea',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Vol.26, No.3, pp.5-34, 2020.
- [7]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mmunity health survey. Available at <https://chs.cdc.go.kr>
- [8] Lee Dong-Hun, Kim Ye-Jin, Lee Deok-Hee, Hwang Hee-Hun, Nam Seul-Ki and Kim Ji-Yun., 'The Influence of Public Fear, and Psycho-social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32, No.4, pp.2119-2156, 2020.
- [9] Cortes, G. M, and Forsythe, E., 'The heterogeneous labor market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Available at SSRN 3634715, 2020.
- [10] Kwon Hyun-ji., 'The main trends in the sphere of labor', *Social Trends in Korea*, pp. 172-184. 2020.
- [11] Son Seo-hee, Sung Mi-ai, Yoo Jae-eon, Lee Jae-rim, Young Eun and Chin Mee-jung., 'Financial Pressur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Family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Korea: Short-Term Longitudinal Impacts and Moderator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6, No.1, 2020.
- [12] Kim Dong-hwan and Lim Hyeong-seok. 'Economic Paradigm Change and Future Tasks After the Corona Crisis', *KIF Financial Analysis Report*, Vol.12, No.16, pp.1-97, 2020.
- [13] Drentea, P and Reynolds, J. R, 'Where does debt fit in the stress process model?'. *Society and Mental Health*, Vol.5, No.1, pp. 16-32, 2015.
- [14] Puhak, J, 'The gyms and fitness chains closed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And what some are offering instead', Fox News. <https://www.foxnews.com>
- [15] B. Schuch, A. Bulzing, J. Meyer, D. Vancampfort, J. Firth, B. Stubbs, I. Grabovac, P. Willeit, V. Tavares, V. Calegario, J. Deenik, G. López-Sánchez, N. Veronese, C. Caperchione, K. Sadarangani, M. Abufaraj, M. Tully, and L. Smith, 'Associations of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r with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in self-isolating peopl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ross-sectional survey in Brazil', *Psychiatry Research*, vol.292, 2020.
- [16] Sa, Hye-Ji and Han, Jee-Hoon., 'COVID-19

- and Leisure Constraints: Testing Hierarchical Leisure Constraints Mod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60, No.1, pp.387–400, 2021.
- [17] Gammon, S. and Ramshaw, G., 'Distancing from the present: Nostalgia and leisure in Lockdown'. *Leisure Sciences*, pp. 1–7, 2020.
- [18] WHO (2020). Access initiative for quitting tobacco. URL: <https://www.who.int/news>
- [19] Oh, Areum, Lee, Jun Young, Kim, Sue–Jean, and Kim, Hwalbin., 'A Study on the Effect of Smokers' Perceived Involvement on the Intention to Quit Smoking in the COVID19Pandemic : The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Fear and Self–efficacy', *Korean Association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Vol.3, No.128, pp. 5–34, 2021.
- [20] WHO, 'WHO statement: Tobacco use and COVID–19', 2020.
- [21] WHO, 'Smoking and COVID–19', Scientific brief, 2020.